



엮음의 미학

‘라탄공예’에 반하다



실용적인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는 셀레임과 더불어 장식적인 가치까지 더해지는 ‘공예’에 대한 관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예부터 전해오는 전통공예는 물론 시대에 맞춰 변화해가는 공예의 변화도 무궁무진하다.

다양한 공예품 중에 최근 인테리어계의 ‘인싸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탄공예’를 소개한다. 과거부터 꾸준한 우리생활에 라탄 소재의 가구나 소품들이 있었지만 최근 웰빙과 자연주의, 북유럽 인테리어가 대세가 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 ‘라탄(Rattan)’은 등(藤)나무를 일컫는다. 열대나 아열대 기후 토지에서 자생하는 덩굴성 식물로, 줄기가 길고 질겨서 공예용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등나무는 굵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공예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주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온다.

등공예라고 표현하는게 맞겠지만 전통이나 불을 밝히는 등(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라탄공예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라탄은 소재가 나무이다 보니 여름철 공예로 많은 주목을 받고 특히 인테리어 소품에 많이 이용된다.

독자들을 라탄공예의 세계로 인도할 이는 이진영(27)씨다. 담양 대나무 숲공예 계승자이기도 한 그는 2년 전 등공예가 박금자 선생에게서 라탄공예를 배우며 또다른 공예의 세계로 들어왔다. 1년 여 만에 강사자격증(한국등공예연구회)을 취득한 후 라탄공예의 매력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대나무 바구니 만드는 걸 보며 자라왔고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대나무 공예로 들어왔습니다. 늘 보아왔던 거라 어렵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이 대나무 공예를 한다’고 신기해하시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손으로 만지작 거리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모든 공예는 재미로 다가옵니다.”

대나무공예와 라탄공예는 나무를 엮는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을 뿌려가며 작업하는 것도 같다.

라탄은 나무의 특성을 이용해 가공을 하기 때문에 날대가 둥글둥글하고, 대나무는 납작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견고하거나 튼튼하기는 대나무가 훨씬 단단하고 멋스럽긴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라탄이 조금 더 나은 듯 하다. 일반인들이 접할 때에도 나무 가시에 찔리는 대나무 보다는 가공이 되어 있는 라탄이 수월하다.

“라탄공예는 환심(등나무를 가공하여 철사처럼 가늘게 뽑은 것)을 구입해 만드는데 비해 대나무는 대뜨기 부터가 공예의 시작이에요. 통대나무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라탄공예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대나무공예도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라탄공예는 서랍장이나 소파, 식탁, 의자 등 다양하게 만들어볼 수 있지만 이씨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인테리어용 소품을 주로 만든다. 다양한 크기나 용도의 바구니, 채반, 컵홀더, 피크닉 가방, 거울 등이다.

“라탄공예는 여름철 잘 어울리는 공예예요. 나무라는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라탄공예 소품을 집안에 두면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고, 라탄의 자연적인 모습에 따뜻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절에 제한없이 사계

절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씨가 알려주는 라탄공예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가장 큰 장점은 견고하면서도 굉장히 가볍다는 점이다.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손끝으로 ‘나무를 느끼며’ 엮기만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매력이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만들고 싶어지는 마력이 있으며 만드는 동안 잡생각이 사라져서 스트레스 풀기에도 좋다.

라탄공예에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하다. 환심과 가위, 송곳, 물이면 충분하다. 환심은 1mm부터 7mm 까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환심의 굵기가 달라지는데 이씨는 크기가 작은 소품을 만들기 때문에 2mm 환심을 주로 사용한다. 피크닉 가방 등 좀 더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2.5~3mm 환심을 사용하기도 한다. 굵은 환심을 이용해 서랍장이나 의자, 테이블, 소파까지도 만든다고 하니 라탄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환심은 작업 전 5~10분 정도 물에 담가두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공을 했다면 나무이다보니 딱딱할 수 밖에 없다. 시작 전에 물에 담가두면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긴다.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엮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진다. 만들면서 수시로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뿌려주기도 한다. 환심이 쪼으면 마른 형태에서는 느끼지 못했

던 향이 진해진다. 나무 향이라기보다는 지푸라기 같은 향이다.

부드러워진 환심을 이용해 컵 홀더 만들기를 배워보기로 한다. 재료는 2mm 등나무 환심을 60cm 길이로 자른 날대 13줄이다. 먼저 13줄의 날대를 가로 7줄, 세로 6줄로 나누어 십자형태로 가지런히 놓는다. 십자짜기로 바닥을 탄탄하게 만든다.

원하는 넓이의 바닥이 마무리되면 날대를 세워 막엮기를 하며 높이를 올려간다.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전체를 통으로 엮어 올라가도 되고 2단 또는 3단으로 형태를 바꿔 올려도 된다. 무늬 만들기와 마무리 기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눈으로는 나무를 엮는 손을 보고 귀로는 설명을 듣고 있지만, 사실 열 번 보고 열 번 설명을 들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직접 손으로 만져가며 엮는 과정을 통해 배워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4개 제품을 만들어본 사람이라면 다른 완성작만 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금세 이해할 수 있다. 숙달이 되면 환심을 별도로 구입해 집에서 혼자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을 배우든지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수강생들이 다들 쉽다고 이야기 합니다.”

베이지 컬러의 나무 색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하

는 편이지만 간혹 염색을 하기도 한다. 불에 그을려 자연스러운 색을 강조한 다음 바니시를 발라 마감해준다. 자연 그대로 두면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한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라탄 공예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정성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마음이란다. 갖고 싶다면 내 손으로 직접 도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라탄공예가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탄공예를 오래하셨던 분들이 점점 대나무 공예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향후 강사반을 오픈해서 공예를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탄공예를 시작으로 대나무 공예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라탄공예 수업은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진행되며 초급용 원데이 클래스는 2시간, 다양한 매듭을 섞어 만드는 중급·고급반은 3~4시간 소요된다. 강사반 수업을 통해 수료증을 취득한 후 이씨처럼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라탄공예 원데이클래스 문의 010-2074-0301. 블로그: <http://kidaribamboo.com>.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라탄공예 매력 전하는 이진영 씨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고 따뜻한 분위기 ... 사계절 어울리는 공예”

환심·가위·송곳·물 준비물... 인테리어 소품부터 식탁·의자까지 쉽고 다양

“나무를 엮는 공통점... 라탄공예 대중화로 대나무공예까지 관심 이어졌으면”

공예가 이진영씨가 여름철 잘 어울리는 라탄공예 작품을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라탄공예는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손끝으로 엮어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신양파크호텔

www.shinyangparkhotel.com